

꽃이 피어나는 소변기 (Happy Blooming Urinal)

허도성, 이익원

한양대학교

Abstract

화장실은 인간으로써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게 되는 공간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곳으로, 위생과 가장 직결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공화장실의 경우, 관리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곳이 많다.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불쾌한 환경으로 인한 불편한 인식이 더해져 공공화장실의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용자는 지저분한 화장실을 이용하며, 배뇨해결의 만족감이 아닌 불쾌감을 얻고 나가게 된다.

따라서,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편안함, 안정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감성 커뮤니케이션(Affective communication) 소변기를 만드는 것으로 작품의 주제를 정하였다. 소변기가 조명으로 사용자를 반겨주고 소변의 온도를 입력신호로 받아서, 소변기 벽에 꽃의 형상을 빛으로 나타내는 소변기이다.

화장실 이용객들은 피어나는 꽃을 보며 재미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한 지점(꽃)에 소변을 집중하게 하는 효과로,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유료화장실 문화가 보편화된 해외시장에 출시 할 경우,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삭막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이 '잠간의 화장실 이용시간'에라도 쾌적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개인의 행복만족도 향상과 실제 화장실을 비롯한 공공문화 환경개선에 분명히 효과적일 것이다.업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